

전주시 볼라드 보행자 사고 위험

기준 미달 2000여개 달해 파손된 것도 그대로 방치

전주시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가 지정된 규격에 맞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파손된 볼라드 철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볼라드 철거 과정에서 밀동을 깨끗이 제거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설치된 볼라드는 총 2699개로, 이중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마련됨에 따라 규격화 된 기준에

미달된 볼라드는 2000여개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 9조(보행안전 시설물의 구조 등)에 따르면 볼라드의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 로 규정,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말뚝 간격은 1.5m 인폭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볼라드 0.3m 앞에는 충돌 위험 구조물을 알리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규격화 이전에 설치된 볼라

드가 2000개가 넘고, 파손된 볼라드도 제때 보수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보행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완산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설치된 볼라드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볼라드 밀동이 남아 불규칙한 단면이 그대로 노출돼 보행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용머리로의효자광장에서 안행교 구간에 설치된 볼라드 주변에는 점형블록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도로관리팀은 “볼라드 주변에 점자 보도블록을 모

두 설치하면 오히려 도로가 저저분해질 수 있다”며 “한 해 필요한 사업비가 50억원 정도인데 시에서 지급받은 유지관리비는 18억원에 그쳐 시급한 사업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규격화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는 차량이 보행자 도로 위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치했으나, 법 제정 이후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설치된 볼라드들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있고 예산이 한정적이라 늦어지고 있을 뿐 연차적으로 기준에 미달된 볼라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 세워야”

박병술 전주시의원, 5분 발언서 주장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은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 제도와 개선과 정책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의 청소년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4만 3899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주시가 청소년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 1조3000억원 가운데 0.5%인 73억원에 불과하고, 청소년 관련 공약 또한 4개 분야 9개 사업중 3개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세워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의 청소년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4만 3899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주시가 청소년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 1조3000억원 가운데 0.5%인 73억원에 불과하고, 청소년 관련 공약 또한 4개 분야 9개 사업중 3개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자 빗을 준비 되셨나요

2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러쉬 직원들과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들이 과대 포장으로 만들어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 네이키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본격화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 통보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자로 항공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통보함에 따라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항공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현장 사무실을 갖추고 가도설치 등 기반을 갖춘 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다음달

중에 첫 삽을 뜨고 조성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 도도동 일대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 협의율은 22일 현재 74%이며, 지난 15일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다음달 중순에는 92%의 토지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35사단과 항공대대 이전을 추진, 당초 항공대대는 김제신공항을 검토했으나 2008년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2011년 국방전문 연구기관인 국방연

구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전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임실6탄약창과 완주하리, 전주 도도동 등이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전주시는 35사단이 이전하는 임실6탄약창으로 항공대대 이전을 추진했으나, 임실군 지역민들의 반발에 막혔다.

항공대대 이전 반대를 고수하는 임실 지역민들의 반발에 막힌 전주시는 제3의 후보지를 모색,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두 곳에 대해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를 의뢰, 도도동이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다.

/김영재 기자

불법 여론조사 기획사 적발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지역 한 기획사 대표 고모(46)씨와 텔레마케터 이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일부터 전주시에 한 사무실에서 이씨 등 텔레마케터 4명을 고용해 3000여명에 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어기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언론사를 사칭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전주한옥마을, 청년 일터로 만든다

고용부 일자리 창출 사업 선정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이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일터로 거듭난다.

전주시는 고용노동부의 '201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전주다운 청년 창업·창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6기 전주시 청년일자리 부문 대표사업인 '청년 상상놀이터' 구축에 앞서 한옥마을 등 전주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과 창직을 지원하는 선도사업으

로, 시는 올해 국비 1억12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4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13명의 청년들을 모집한 후, 회계·경영 등 5개 과정 총 20시간의 프로그램과 1:1맞춤 집중 멘토링, 실전 롤라보레이션, 프리마켓 운영 및 검증 시스템을 통해 11명을 최종 선발해 총 4600만원 정도의 초기자본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창업·창직으로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물론, 전주한옥마을의 관광객을 더 유도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저상버스 승강장 설치 추진

평화주공 1·2단지 등 14곳에

전주시 객사 맞은편 승강장 주변 나무에 걸려있는 작은 현수막 편지가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이 나무는 지난 3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며 전주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 은행나무로,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벌목을 앞두고 있다.

나무에 걸려있는 현수막 편지에는 벌목 예정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문구와 함께 '나무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그늘막과 휴식공간이 되어준 나무야.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주렴'이라는 나무에게 보내는 편지가 쓰여 있다.

이 나무가 벌목되는 이유는 이곳이 전주시가 장애인들도 버스타기 편리

한 대중교통 환경을 갖춰나가기 위해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14곳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시는 저상버스 승강장 설치 장소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이식이 가능한 가로수는 이식하는 것으로 반영했으며, 이식해도 고사될 수 있는 가로수는 가로수 옆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장애인들도 버스타기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16개 장애인단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총 14개 승강장을 저상버스 승강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승강장이 설치되는 곳은 평화주공 1·2단지(시내방면), 한옥마을·전동성당(시내방면), 객사앞(병무청 방면), 전라북도세화관(평화동 방면), 병무청(양 방향), 예수병원(완산구청 방면), 이마트 앞 등이다.

/김영재 기자

제53회 법의 날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도

‘마을변호사’ 제도와 ‘공동주택자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변호사 제도

이제는 ‘개인’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 스스로 변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1.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1. 경청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 전북지방변호사회는 ”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상담문의 ☎ 063)252-7710, 063)251-7568

부 회장 최낙준		부 회장 강성명	
총무상임이사	김영호	이사	이성욱
재무상임이사	장석재	이사	윤지관
공보상임이사	이종기	이사	국윤호
인권상임이사	황규표	이사	김학수
교육상임이사	남준희	이사	김정호
법제상임이사	정재원	이사	이성신
여성상임이사	유연주	이사	홍요셉
군산상임이사	이경재	이사	김수태
정읍상임이사	김성희	이사	최경섭
익산상임이사	우관수	이사	우석환
		이사	박민수
		이사	황정열
		이사	김동규
		이사	김용호
		이사	김현승
		이사	이삼일
		이사	이영일
		이사	국순화
		이사	서성현
		이사	하현환
		감사	김광성
		감사	김이현